



# 빛과 어둠 사이, 예술적 궤적을 조망하다

전남도립미술관, 우제길 초대전 '빛 사이 색' 전시회를 보고...

기하학적 추상 담은 초기작부터 분할된 색면 조화 이론 근작까지 시대별 작업 변화 담아낸 총 5부 구성...100여 점 회화 작품 선배

'빛의 화가' 우제길 화백의 작업세계는 '빛'에 대한 끊임없는 변주의 연속이라 할 수 있다.

지난 7일 우제길 화백 초대전 '빛 사이 색'이 열리고 있는 전남도립미술관을 찾았다. 전시장에서 마주한 100여 점 회화는 '빛'을 소재로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거듭해 온 우 화백의 60여 년 작업세계를 떠올려보기에 충분했다.

이번 전시는 시대별 작업 변화에 따라 총 5부로 구성됐다.

'빛'을 주제로 한 추상 이전 그의 과도기적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1부 '기하학적 추상

의 시작', 절단된 면의 틈 사이 솟아나는 빛 그리고 특유의 직선이 강조된 대작들을 소개하는 2부 '어둠에서 찾은 빛', 구도의 변화와 밝은 색채가 돋보이는 3부 '새로운 조형의 빛으로', 원색의 빛을 다양한 실험적 방식으로 구현한 4부 '색채의 빛', 평생 빛을 쫓아온 그의 신작들을 선보이는 5부 '지지 않는 빛'이다.

광양과 광주에서 유년기를 보낸 우제길은 한국 앵포르멜 대표작가 양수아를 스승으로 만나 추상미술의 싹을 틔우게 된다. 즉흥적인 선과 색을 강조하는 'My heart' (1960)가 대표적인 작품이다.



'Light, 2024-12B'

1960년대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그의 초기작은 '기하학적 추상'이 돋보이는 작품들이 주를 이룬다. 그 근원이 되는 작품 'Abstraction of red stripes'를 비롯해 1972년 전남도 미술전람회에서 추상화가 최초로 우수상을 받은 '리듬 72-3H' 등은 '추상'에 대한 우 화백의 남다른 관심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추상 화가로서 기반을 쌓아가며 중앙에서도 그 인지도를 높인 우 화백은 1970년대 중

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검은색을 바탕으로 작업해왔다. 그 중에서도 흑과 백의 대비로 빛을 조형화한 작품들이 눈길을 끈다. 그는 손과 손바닥으로 물감을 여러 차례 문지르는 방식의 그라데이션 그림을 완성했는데, 1980년대 들어서는 도구를 사용해 빛의 반사를 보다 세밀하게 표현해냈다.

30여 년간의 교직생활을 마친 1992년 그는 전업작가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한다. 기존 직사각형이나 육각형을 주로 다뤘던 작가는 삼각형이나 사다리꼴, 첨탑 등의 다양한 형태로 시선을 돌린다.

채도가 낮은 다양한 색채를 사용한 작품들도 눈길을 끈다. 이 시기 그가 표현한 빛은 마치 솟아오르는 태양과 같이 그간의 혼돈과 어둠으로부터 벗어나는 희망의 상징으로 보이기도 한다.

2000년대 이후 그의 작품은 더욱 다양한 원색으로 발현된다. 마치 색동저고리를 떠

울리게 하는 그의 '빛'은 한국적인 미감을 담아낸다. 자로 잦듯한 반듯한 띠들의 집합이 궁극음을 자아내는데, 이는 '마스킹 테이프'를 활용한 결과물이다.

우 화백은 면을 분할할 때 서로 색이 섞이지 않도록 테이프를 붙인 뒤 떼어내는 작업을 이어왔다. 그리고 사용한 테이프를 한지와 함께 플라주해 위로 솟아오르는 거대한 빛무리를 만들어낸다.

평생 '빛'이라는 일관된 주제를 전착해온 작가의 근작은 여전히 다양한 변화를 시도 중이다. 여든이 넘는 나이에도 여전히 '빛'을 쫓는 그의 최근 작품들은 훨씬 풍부해진 색채의 표현과 평면성이 강조된다. 분할된 면과 색을 함께 사용한 'Light, 2024-12B'는 지난 1월 완성한 최근작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겹겹이 쌓아 올려진 오색빛깔 산의 형태를 떠올리게 한다.

이와 함께 전시장에서는 호남지역 추상미술의 거점 역할을 한 '에뎬프' 회원으로서의 활동을 담아낸 우 화백의 아카이브 자료 등도 함께 만나볼 수 있다. 전시는 오는 5월19일까지 이어진다. /최명진 기자

# 몸짓으로 전하는 봄 향기... '잔잔한 유혹'에 빠지다

광주시립발레단 'Voice of Spring' 리뷰

한시도 눈을 땔 수 없는 봄의 향연이 펼쳐졌다.

지난 9일 오후 3시 광주시립발레단의 발레살롱콘서트 'Voice of Spring'은 공연 주제와 같이 봄 향기가 물씬 느껴지는 다채로운 7개 작품으로 꾸며졌다.

박경숙 광주시립발레단 예술감독의 해설로 시작된 이날 공연에는 30여명 단원들이 함께 했다.

첫 무대는 러시아 민간 문학에 바탕을 둔 '곰사냥이 망아지 중 프레스코'로 시작됐다. 마치 프레스코 벽화에서 막 튀어나온 것 같은 여인 4명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작품으로, 각자의 개성 넘치는 춤사위가 산뜻한 계절감을 느끼게 했다.

끼게 했다.

'탈리스만 그랑 파드되'는 남녀 무용수의 화려한 기교가 돋보이는 무대였다.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안무와 연달아 펼쳐지는 턴과 점프 동작은 관객들의 박수갈채를 자아냈다.

라이브 연주와 함께 펼쳐지는 '타이스의 명상곡'도 인상 깊었다. 박승원 바이올리니스트와 이유정 피아니스트의 감미로운 선율은 세 커플이 선보이는 설렘 가득한 몸짓과 함께 어우러져 공연에 더욱 몰입감을 줬다.

'라 비야테르' 2막 '인디안 댄스'는 빠른 템포와 경쾌한 리듬이 돋보이는 발레 작품이었다. 이국적인 의상을 갖춰 입은 무용수들의 군무가 클래식



광주시립발레단 'Voice of Spring' 커튼콜

스에 다다를수록 객석에서의 호응 또한 뜨거웠다.

세익스피어 희곡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로미오와 줄리엣' 중 '발코니선'은 인물의 심리묘사가 극에 달하는 아름다운 무대였다. 앞선 무대와 다른 잔잔한 분위기 속 공유민 발레리나와 박범수 발레리노의 열연이 펼쳐졌다. 물 흐르듯 매끄럽게 이어지는 몸짓과 애

잔한 표정 연기가 빛을 발했다.

오는 10월 20여 년 만에 광주에서 선보이는 '코펠리아' 전막 공연을 미리 엿볼 수 있는 무대도 마련됐다. 이날 무대에서는 12명 무용수들의 군무로 구성된 3막 '시간의 춤'에 이어 고도의 테크닉과 민속적인 음악 색채를 지닌 3막 '그랑 파드되'가 대미를 장식했다. /최명진 기자

# "목성, 오리온 대성운 보러오세요"

국립광주과학관, 20-21일 '별빛학교'·'밤하늘 관측대장' 운영

별빛천문대에서 우주 속 아름다운 천체를 관측할 수 있는 야간천체관측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국립광주과학관은 오는 20-21일 '별빛학교'와 '밤하늘 관측대장'을 운영한다.

'별빛학교'는 천문우주에 관심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20일 운영된다. 천체투영관에서 우주여행을 하며 별자리를 찾아보고, 1.2m 반사경을 가진 대형망원경으로 달과 목성 등 다양한 천체를 관측해볼 수 있다.

21일에는 망원경 체험교육 '밤하늘 관측대장'이 진행된다. 참가자는 천체 망원경을 설치해보고 자유롭게 조작하며 천체를 관측할 수 있다. 또한 자

신의 휴대폰을 이용해 천체를 촬영하고 찍은 사진을 인화해 기념품으로 가져갈 수 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달의 분화구와 줄무늬가 아름다운 목성, 대표적인 발광성운인 오리온 대성운을 관측할 수 있다. 날씨에 따라 천체관측이 어려워질 경우 대체프로그램으로 망원경 미니 어저 만들기와 전시관 내 실내 관측체험을 운영한다.

별빛천문대 야간천체관측 프로그램은 매달 운영되며, 천문교육과 특별천문행사를 포함한 2024년 별빛천문대 연간 운영일정은 국립광주과학관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명진 기자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심의원호  
220603-중-139779